

# 1960년대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유일사상의 대두 : 제한적 다원성에서 유일체제로

이승현(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원)

## 1. 머리말

1960년대가 북한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은 김일성의 지도 아래 전후 복구에 성공하였고,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연속선에서 볼 때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은 북한의 전성시대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1960년대를 삶으로 부딪혀 보고 기록으로 남긴 성혜량은 당시 북한을 “살기 좋았다”는 말로 표현했고 황장엽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황금시대”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들의 기록이 당시 북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1960년대 북한의 전체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전해 주기에는 충분하다.

이 글은 1960년대 북한 체제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에는 무

엇이 자리잡고 있었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그 호기심은 제한적 다원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해방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정치권력이 제한적이거나 다원성을 유지했을 때는 사회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였지만 이 다원성이 소멸하고 단원적 지도체제가 강화되면서 사회의 메커니즘이 생명력을 상실해 갔다는 가설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제한적 다원성이 김일성의 유일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희생되고 사회의 활력을 상실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sup>1)</sup>

1960년대의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들<sup>2)</sup>이 있어 왔지만 196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권력구조가 제한적이거나 다원적인 상태에서 단원적 상태로 바뀌어 갔다는 사실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이 글은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 정치가 제한적이거나 유지했던 다원성과 19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제한적 다원성이 소멸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특정한 이론을 활용하여 북한을 분석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1960년대 북한 정치를 대상으로 하는 이 글은 당시 북한 정치가 갖고 있었던 제한적 다원성을 복원하고, 이러한 제한적 다원성이 권력구조 차원에서 유일체제하의 단원성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추적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1967년이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1967년을 중심으로 그

- 
- 1) 이는 정치한 이론과 방대한 자료가 동원되어야 할 큰 주제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았다.
  - 2)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종석, 와다 하루키, 스즈키 마사유키의 연구를 들 수 있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결과물을 놓고 이종석은 유일지도체제, 와다는 유격대국가, 스즈키는 수령제라고 불렀다.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 역사비평사, 1995); 와다 하루키 지음, 서동만 외 옮김,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서울 : 돌베개, 2002);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 중앙일보사, 1994).

전과 후의 북한 권력구조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67년의 정치적 격변에 우선 주목하고 그 전후 시기로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1960년대 북한 정치의 모습을 복원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연구자료로는 당시 북한의 정치상황을 이해하고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예컨대 김일성, 김정일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남긴 기록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은 1967년 숙청을 주도하고 반대파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이러한 비판들을 비판적으로 해독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흔적들을 찾아 낼 수 있다. 또한 1967년 당시 북한 정치를 경험한 후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책으로 남긴 사람들의 기록들도 활용할 것이다. 예컨대 신경완, 황장엽, 그리고 성혜량 등의 기록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2. 1967년의 정치적 격변과 그 전사(前史)

1967년 북한에서는 정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동안 김일성을 지지하던 당 서열 4위 박금철, 5위 이효순 등 갑산파를 숙청한 것이다.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는 김일성 중심의 유일체제로 변동하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 그런데 멀리는 1945년 이래로 가깝게는 1961년부터 이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김일성이 왜 1967년에 갑산파를 제거하고 유일체제로 전환하려 했을까? 1967년을 전후하여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리고 그 이후 북한 체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 1) 1967년의 숙청

1967년 북한의 정치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1967년 5월에 조선로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sup>3)</sup> 이 회의에서 비판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박금철, 이효순, 김도만(사상담당비서), 고혁(문화예술부장), 허석선(당 과학교육부장), 이송운, 김알룡, 허학송, 박용국 등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박금철은 갑산에서 김일성의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서, 김일성, 최용건, 김일 다음의 서열을 차지할 정도로 김일성의 측근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다. 이효순은 이계순과 형제지간으로서 지하공작원 활동을 했다. 해방 직후 지방 당간부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던 이효순은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중앙당 연락국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김도만은 사상담당 비서, 당위원회 서기장, 당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당 선전선동부장이었다. 고혁은 내각 부수상, 문화예술 부장으로 활동중이었다.

이들을 정치무대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sup>4)</sup> 김정일은 이들이 유일사상을 위배하고, 지방주의를 조장했으며 수정주의를 내세웠다는 죄목으로 공격했다. 공격의 원칙에서부터 회의의 실무적인 준비에 이르기까지 김정일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실 이들은 과거에 김일성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세력이었는데 1967년 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일거에 숙청된 것이다. 또한 김도만

---

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 : 현대편 사회주의 건설사 4』(평양 :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2), 28쪽.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5월 4일부터 8일까지 지도하시였다고 적고 있다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년표 2)』(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384쪽.

4) 김정일의 역할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5장 3절의 “변화의 주도자 : 김정일”에서 다루고 있다.

이나 박용국 같은 이들은 김영주의 지지세력들이었으므로 김영주의 위치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들이 제거된 명목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조선로동당을 수정주의의 길로 나가게 하려 했다”<sup>5)</sup>는 것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강화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것으로 보기보다는 김일성의 당 장악과 권력강화 과정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김일성이 당을 장악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노선투쟁과 노선투쟁을 둘러싼 권력투쟁 과정은 이전에도 있어 왔으며 1970년대 중후반에 가서 김동규를 숙청하고서야 마무리된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김일성과 빨치산파 그리고 갑산파는 탄탄한 응집력을 보이면서 연안파와 소련파를 제거하는 데 주력했고 이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1967년에는 이들이 주요 공격대상이 된 것이다.

## 2) 1967년 숙청의 전사(前史)

북한에서 김일성이 반대파를 비판하고 숙청해 온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직후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일사상, 즉 주체사상과 관련지으면 1955년에서 시작할 수 있다. 당시에도 김일성은 반대파에 대한 비판을 통해 노선투쟁을 벌인 바 있다. 그 해 12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발표하였는데, 이 문건은 195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관료주의,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소련파, 연안파에

---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431쪽.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후 다음해인 1956년 4월 열린 조선로동당 3차 대회를 통해 김일성은 당을 거의 장악했다. 왜냐하면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최용건, 박정애, 박금철, 정일룡, 김창만이 선출되는 등 친 김일성 계열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일성파의 권력강화는 상대적으로 연안파나 소련파의 권력 약화를 뜻했다. 이 연안파와 소련파가 연합하고 중국 및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김일성의 권력강화에 대하여 의미있는 도전을 시도했던 것이 8월종파사건이었다. 최창익, 박창옥, 이바노프가 주축을 형성하고 여기에 서취, 윤공흠, 고봉기 등이 합류하여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비판하며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일성과 갑산파 그리고 빨치산파의 일치단결된 협력으로 이들의 반 김일성 연합은 중소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무위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북한 내 김일성파와 반 김일성파 간의 권력투쟁적 성격, 전후 복구 및 경제건설 정책노선을 둘러싼 정책 논쟁적 성격, 국제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따른 대외적 영향과 북한의 대외 자주성의 시험대적 성격을 중첩적으로 갖고 있는 복합적 사건이었다.<sup>6)</sup> 특히 대외 자주성과 관련하여 중소의 내정간섭을 물리치고 김일성이 승리함으로써 중소의 북한에 대한 후원 - 수혜 관계를 부정할 수 있게 되었다.<sup>7)</sup> 이 싸움에서 결국은 김일성이 승리하고 그의 정책노선이 채택되는데 이 과정은 그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당내에서 이미 확보한 권력 우위를 확실히 하는 기회인 동시에 김일성이 추구해 온 당 노선의 총체적 정당성을 확보하

6)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6쪽.

7)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서울: 범문사, 1985), 54쪽;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 64~65쪽; 류길재, “북한정권의 형성 과정: 인민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김일평 외, 『북한 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후의 시기는 김일성과 갑산파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김일성의 권력을 강화해 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 사이에 조선로동당은 제4차 대회를 열고 김일성을 다시 위원장으로 뽑았다. 위원장으로 뽑힌 김일성은 1962년 11월 8일에는 대안의 사업체제를 제안하였다.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를 열고 “조성된 정세와 관련한 국방력 강화문제”를 논의한 다음 4대 군사노선과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경제-국방 병진 노선은 1966년 10월 대표자회의 이후 확대 집행되었다. 한편 1964년 2월 25일에는 농업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했는데 이 문건은 이후 북한의 농업문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였다. 또한 당은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중앙위원회 4기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를 결정했다. 성분조사를 통해 인민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이들을 어떻게 경제건설에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1965년 4월 14일 에는 김일성이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연설하면서 주체사상의 4대 기본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에 실린 “자주성을 옹호하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로동당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자주를 선언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대내적인 권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관계에 있어서도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김일성 중심의 권력구조가 확고해져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다원적인 측면이 존재했다. 이 제한적인 다원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과정은 북한에서 김일성 유일체제가 자리잡아 가는 과정과 맥락을 같이하였다.

### 3. 북한 권력구조 내의 제한적 다원성

북한 사람들은 1967년 이전 북한을 “살기 좋았다”는 말로 표현한다.<sup>8)</sup> 북한은 1967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인민의 나라였으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나라였으나 1967년을 계기로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북한은 1967년 이후 계급투쟁과 프로독재의 강화, 수령 우상화의 심화, 인텔리 혁명화를 몰아쳤고, 이런 와중에 극좌적인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획일화가 진행되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1967년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은 사회적으로나<sup>9)</sup> 정치적으로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원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1967년을 전후하여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모습을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권력구조 내에서 제한적 다원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실마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김일성과 갑산파는 1967년 이전까지만 해도 견고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일치단결하여 연안파와 소련파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 김일성 중심의 세력 내부에서 견해 차이가 생겨났고 일정한 분파 현상이 발생하였다. 예컨대 김일성·김정일과 갑산파 일부 세력 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북한 권력 내부에 어느 정도의 다원성이 존재했다는 실마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발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되는 사

8)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 지식나라, 2000), 312쪽.

9) 1960년대 북한 사회의 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있는 기록으로는 위의 책, 276~325쪽 참조.

실이다. 제4기 15차 전원회의 이후 발표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저작물에 나와 있는 반대파에 대한 비판을 검토해 보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반대파 비판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북한의 정치권력 내부에 남아 있던 제한적 다원성을 복원해 볼 것이다.

### 1) 정치 파벌의 잔존 가능성

1967년 이전까지도 여전히 김일성과 견해를 달리하는 정치파벌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과거에 김일성에게 도전을 시도했던 국내파 공산주의자, 연안파, 소련파와 같이 조직적인 수준의 파벌은 아니겠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 파벌 분포를 보면 중앙위원 71명 중에서 국내파 25명(35%), 김일성과 11명(16%), 연안파 18명(25%), 소련파 9명(13%), 기타 8명(11%)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무위원 11명은 국내파 2명(18%), 김일성과 5명(46%), 연안파 2명(18%), 소련파 1명(9%), 기타 1명(9%)을 차지하고 있었다.<sup>10)</sup> 상무위원 중에서는 김일성과가 압도적인 반면 중앙위원 중에는 여전히 과거 파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김정일은 “조직적인 종파는 없어졌지만 종파의 사상적 근원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으며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고, 외부로부터 수정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자 부르쥬아 사상,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 흐름에 편승하여 조선로동당을 반대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김정일의 지적을 분석해 보면, 공식적으로 조직

10) 『로동신문』, 1961년 9월 19일.

11) 김정일,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뽑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차원의 종파를 제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파의 사상적 근원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함으로써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1967년에 제거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갑산파, 소련파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1967년 이전만 해도 김일성의 빨치산파 이외에도 다른 파벌이 여전히 생명을 이어 가고 있었으며 과거 김일성을 지지하던 갑산파 등이 이견집단으로 등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상이론적으로나 정책노선 차원에서 김일성과는 다른 견해를 견지하다가 1967년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김일성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고 숙청된다. 그러나 이들이 숙청되기 이전까지 김일성의 일부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견지하면서 북한 권력을 내부적으로 다원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일조했던 것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문건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 2) 유일한 혁명전통에 대한 이견

1967년 이전까지만 해도 혁명전통에 있어서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혁명전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와 더불어 그와 비슷한 투쟁경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투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김정일의 반대파에 대한 비판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찾아진다. 그는 반당반혁명 분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반대하고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반대 세력의 도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비판한

---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31쪽.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김일성의 반대 세력들은 김일성이 혜산에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을 건립하려고 할 때 이 탑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념탑 건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폈다. 그리고 기념탑이 인민영웅탑이므로 거기에 수령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탑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sup>12)</sup>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러나 15차 전원회의가 끝난 다음 196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 승리 30돌을 맞아 김정일은 갑산파의 반대를 무시하고 혜산에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을 세웠다.<sup>13)</sup>

또한 당 사상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던 반대파들은 조선로동당력사 연구실을 없애고 향토사 연구실을 만들라고 지시<sup>14)</sup>하였으며 당원들과 인민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활동도 방해했던 것으로 비판받았다.<sup>15)</sup> 특히 반대 세력의 일부(박금철)는 자기의 “전기”를 제작하고 “생가”를 조성<sup>16)</sup>하였으며 <일편단심>이라는 연극을 만들기도 했다는 비판<sup>17)</sup>을 받았다. 김정일은 박금철과 이효순이 중심이 되어 만들

12) 위의 글, 232쪽.

1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 : 현대편 사회주의 건설사 4』, 31쪽.

14)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6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59쪽.

15) 김정일,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 232쪽.

16) 이 문제에 대해 김일성은 “일부 동무들은 어떤 개별적인 사람의 생가까지 꾸려 주었습니다. 내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도 말하였지만 우리는 혁명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에 대하여서만 그 공적을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가를 꾸려 주거나 비석 같은 것을 세워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 데 대하여” (도, 시, 군 및 공장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7. 3. 17 ~ 24), 『김일성 저작집』, 제2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39 ~ 140쪽.

17) 탁진·김강일·박홍제, 『김정일 지도자』, 제1부(평양 : 평양출판사, 1994), 121쪽. 연극 <일편단심>은 음모가, 야심가들이 제놈들의 너질한 자서전을 분칠하기 위하여 꾸며 낸 각본이며 제놈들을 요란한 혁명가로 내세우기 위하여 수를 피운 연극의 연

있던 영화 <일편단심>을 “유일적 지도자 김일성”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화라고 문제제기하였다. 이 영화는 박금철의 처가 박금철에게 충성하는 수절과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이 반대파에 대하여 가한 비판이지만 이 비판 속에서 김일성의 혁명전통뿐만 아니라 다른 투사의 혁명전통도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였던 당시 권력 내부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김일성 전기가 아니라 박금철 전기가 존재하고 김일성 생가 이외에도 박금철 생가가 존재했다는 것은 다원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는 혁명전통의 수립과정에 이견이 표출되었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은 북한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고 혁명적 자산이라고 힘주어 말했지만 반대파들은 혁명전통의 폭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하려 했다.<sup>18)</sup>

김정일의 비판은 구체적인 곳에까지 미치고 있다. 김정일은 반대파들이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 교양자료를 출판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이미 간행된 것들도 옛날 이야기 책을 보듯이 한 번 읽어 보면 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반대파의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 교양을 강화하려는 의도와는 배치되는 행동이었다.

김일성도 혁명전통 훼손과 관련하여 <내가 찾은 길>을 비판하였다. 천세봉의 <안개 흐르는 언덕>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았다. 첫째는 항일혁명가를 형상화하는 작업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1920년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이 김일성의 항일유격

---

극이라고 적고 있다.

18) 김정일,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째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 233쪽.

대원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묘사한 부분도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1920년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박헌영, 최창익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항일유격대원이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정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비판했던 것이다.<sup>19)</sup>

이는 1967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정치권력 내부에는 항일운동을 했던 다양한 독립운동의 전통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음을 알려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곧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만이 정통성을 획득하고 나머지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 3) 노선과 정책상의 충돌

당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이견도 드러났다. 즉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노선과 정책이 대등하게 또는 대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지분을 갖고 경쟁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비판을 검토해 보면 반대파들은 네 가지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첫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노선을 반대하였다. 둘째, 대안의 사업체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했다. 즉 대안의 사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셋째, 경제 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복구기에는 예비자원이 많기 때문에 경제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경제규모가 커진

19) 김일성, “혁명이 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창립 스무돌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 및 졸업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67. 10. 11), 『김일성 저작집』, 제2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30~431쪽. “우리나라에는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전통 이외에 혁명전통으로 배울 만한 다른 전통은 없습니다. 1920년대 투쟁력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엠엘파, 화요파 등 중과생이들이 권력다툼을 하다가 끝내 당을 맡아먹은 력사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결코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황에서는 생산성장의 예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천리마운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sup>20)</sup>

반대파들은 김일성의 경제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속도문제와 관련하여 박금철과 이효순,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문제제기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sup>21)</sup>

이들이 했던 문제제기가 그들 스스로의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다. 그러나 김일성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밝혀 낼 수 있다. 이들은 1966년의 극단적인 경제침체를 겪고 난 뒤 그 동안 당이 사람들과 기계 모두를 너무 무리하게 몰아세웠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생산량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당은 생산량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생산품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과학의 기초를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과도한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과 예산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던 것이다.<sup>22)</sup>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갑산파의 일부 세력들은 북한이 처한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김일성과는 다른 방향에서 문제에 접근하려 했던 것이다.

이들 갑산파와 의견대립을 보이며 김일성의 입장을 대변한 세력은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갑산파의 박금철, 이효순이 균형에

---

20)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6권, 259쪽; 김정일,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 234쪽.

21) 전원근,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있어서 파벌의 형성과 소멸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209쪽.

22)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30~150쪽.

입각한 경제건설을 앞세울 것을 주장한 데 대하여 현역 군 장성들인 김창봉, 최광, 최현, 허봉학, 오진우는 군비확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국방건설은 되든 말든 경제건설이나 계속하면 된다” 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죽여야지 둘 다 밀고 나가는 곤란하다”<sup>23)</sup>는 반대파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갑산파를 숙청하는 쪽으로 정책대립을 해소하였다.

경제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당정책과 다른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예컨대 물질적 자극으로 노동자들에게 동기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생산은 사회주의적으로 하더라도 관리는 자본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sup>24)</sup>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이 수용되고 당정책에 반영되었다면 1960년대 말 1970년대 북한 경제의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처음부터 제거된 것이다.

숙청 대상자들을 다시 돌아보면 어떤 정책이 특히 김일성의 견해에 배치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예컨대 갑산파 안에서도 문치파라 할 수 있는 이효순과 박용국이 숙청되었는데 이는 대남정책이 김일성 구상한 방식과 다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해 준다. 또한 소련파인 고혁과 김도만이 숙청된 사실은 그들이 담당하고 있던 당의 지식인 정책 및 선전정책에서도 김일성과 다른 방식이 견지된 것을 추론할 수 있다.<sup>25)</sup>

속도에 근거한 경제건설노선, 경제와 국방 병진 노선, 대안의 사업체계, 천리마운동은 사실 1960년대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골간이라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이런 큰 줄기에 대해 이견이 제시되었다는

23) 김정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 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 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63쪽.

24) 김정일,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째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 235쪽.

25) 전원근,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있어서 파벌의 형성과 소벌에 관한 연구”, 208쪽.

것은 정책결정 과정을 지배하던 당시 북한 권력구조 내에 그래도 다원성이 남아 있었으며 이들이 체제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비판세력으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사상이론 분야의 다양성

사상이론 분야에서도 김일성의 생각과 다른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정치권력을 김일성이 장악했지만 아직은 김일성의 생각이 유일하고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김일성의 사상 이외에 다른 입장들도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김일성은 반대파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를 왜곡하여 부르주아 사상, 봉건 유교사상,<sup>26)</sup> 지방주의를 부활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부르주아 사상을 유포했던 근거로 김일성이 지적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첫째,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독재에 시비를 걸었다. 둘째, 핵심군중을 배격하고 적대계급과의 타협을 조장했다. 셋째, 자본주의 출판물을 극구 찬양하고 부르주아 연애관과 향락주의로 일관된 “10개년 전망계획”을 선전하면서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봉건 유교사상을 유포했던 근거로 김일성이 지적한 사실들을 보면 첫째,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조선시대 실학파들의 애국전통과 같은 반열에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실학자들의 저서를 많이 출판하고 『목민심서』를 간부들의 필독서로 지정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둘째, 봉건도덕을 장려하였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에 대한 예절교육도 봉건 유교적인 것으

---

26)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7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396쪽.

로 비판받았다.<sup>27)</sup>

조선로동당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한 바 있는데 갑산파의 일부 세력들이 이러한 당의 방침을 왜곡하여 향토주의를 고취하고, 지주를 내세웠으며, 퇴폐적인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말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자기의 고향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을, 자기의 어촌, 자기의 공장, 자기의 도시를 사랑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향의 지주들이나 현 시점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물들을 내세우라는 것도 아니며,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골동품들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며, ‘향토사’ 같은 것을 만들어 지방주의를 고취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sup>28)</sup>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모택동의 개인숭배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1966년에 특히 강조되었다. 김일성이 직접 나서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고취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산파의 주요 인물들은 다양한 혁명전통과 역사적 인물들, 문화유산 중에서 자랑스러운 사례, 그리고 민족의 역사들을 내세우고 이로부터 국가 생존발전을 위한 교훈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흔적을 남기고 있다.<sup>29)</sup>

김정일도 “지난날 반당반혁명 분자들은 당의 책임적인 위치에 숨어 있으면서 당안에 부르조아 사상, 수정주의 사상, 봉건 유교사상을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들을 많이 퍼뜨렸습니다<sup>30)</sup>”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정

---

27) 김정일,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 235쪽.

28)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 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 데 대하여: 도, 시, 군 및 공장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1967. 3. 17~24), 『김일성 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74쪽.

29) 임성택, “조선로동당의 유일지도체계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60쪽.

30) 김정일,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 230쪽.

일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갑산과 인물을 포함한 간부급에서 김일성의 견해와는 다른 사상적 분파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사회주의 이론 분야에서도 이견이 표출되었고 김정일에 의해 강력하게 비판받았다. 사회주의 제도 수립과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종말을 주장한 입장들이 있었는데 이 입장이 수정주의로 공격받았다.<sup>31)</sup> 갑산파들이 부르주아 분자, 수정주의 분자로서 김일성과 다른 입장을 견지했고<sup>32)</sup>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던 것이다.<sup>33)</sup> 김정일은 일부 당원들이 당의 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보지 못하고 부르주아 분자, 수정주의 분자들, 즉 박금철, 이효순을 지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일의 이러한 발언을 뒤집어 보면, 박금철, 이효순의 견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조선로동당 안에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들의 이러한 사상적 분파성은 1967년 15차 전원회의 이후 모두 독소적인 사상으로 비판받았다. 1967년 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31) 위의 글, 235쪽.

32) 수정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비판되었다. 예컨대 검덕광산에서 박금철이 했다는 행태도 김일성에 의해 수정주의의 여독이라고 강력히 비판되었다. 김일성에 의하면 “한 때 나쁜 놈들은 이 광산에 가서 허풍을 치지 말고 그저 알맞춤하게 하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더 생산하겠다고도 하지 못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정주의 여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라를 통일하지 못하고 적들과 직접 맞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저 알맞춤하게 생산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올해에 이 광산 노동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을 옹호하기 위해서도 당이 내세운 광석 생산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김일성,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자”(1968. 4. 13),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평양: 인문과학사, 1972), 21쪽;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상 및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이상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8. 4. 16), 『김일성 저작집』, 제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91쪽; 김일성, “7개년 계획의 중요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총돌격하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68. 4. 25), 『김일성 저작집』, 제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08쪽.

33)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6권, 259쪽.

북한 정치권력 내부에서는 김일성의 생각만이 유일한 사상이론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나갔다. 따라서 김일성의 생각과 다른 견해들은 모두 부정되고 사라지게 되었다.

#### 4. 1967년 이후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북한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유일체제와 유일사상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sup>34)</sup> 이 회의를 계기로 북한 권력 내부에 남아 있던 제한적인 다양성마저 소멸하고 김일성만이 유일한 권력자로 남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북한 정치권력구조 내에 명맥만 남아 있던 정치파벌의 급속한 약화, 유일한 혁명전통의 확립, 노선과 정책상의 충돌 해소, 그리고 사상이론 분야의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김일성은 유일체제로 가는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긴긴 노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업화에 성공함으로써 권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때 8월중과사건을 계기로 주체확립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67년의 숙청사건을 계기로 김일성 중심의 유일체제를 확립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960년대 들어 북한에서는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김일성이 권력을 더욱 확실하게 장악한 다음 유일체제를 확립해 갔다.<sup>35)</sup> 북한 정치권력구조 속에 희미하나마

34)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431쪽.

35) 성혜랑은 유일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이 추진했던 일들 중 몇 가지

생존하고 있었던 다원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고 북한 정치권력은 단원적인 구조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 1) 유일체제의 확립

북한의 유일지도체제는 유일사상과 수령을 기본요소로 삼고 있다. 유일사상은 혁명적 수령관을 바탕으로 하고 수령은 제도적으로는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주석직을 함께 갖게 될 것이었다. 북한에서 유일사상체제를 세운다는 것은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 세워 혁명사업을 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sup>36)</sup>

북한에서는 1967년 5월에 열린 당 제4기 15차 전원회에서 유일사상체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sup>37)</sup> 김정일은 특히 “유일”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후 당위원회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유일사상체계 확립 문제를 공식화하였다. 1967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선거를 마치고 김일성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최용건을 세 번째로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북한은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주체사상이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고 선언하였다.<sup>38)</sup> 1968년 4월 25일 열린 당중앙위원회 4기 17

---

사례들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성해량, 『등나무집』, 313~316쪽.

3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 : 현대편 사회주의 건설사 4』, 29쪽.

37)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락전』(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99쪽.

38)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김일성 저작집』, 제2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88쪽.

차 회의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유일사상으로 공식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김일성 유일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갔다.

1967년을 거치면서 유일지도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고 제한적이거나 남아 있던 다원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1967년 이후 유일체제에 대해 이견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을 같이했던 인물들에게서 일탈적 행위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1967년 숙청을 피해 갈 수 있었으며 군부의 유력한 자리를 역임하고 있었는데 1968년부터 북한 정치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북한 군부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형태가 속출하였다. 예컨대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11월의 울진·삼척지구 침투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1968년 말부터 1969년 1월 사이에 김창봉(민족보위상), 허봉학(대남총책) 등이 숙청되면서 군벌 관료주의가 약화되었다.<sup>39)</sup> 이제 김일성 유일체제를 확립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세력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이후 북한 사회는 다원적인 요소는 사상된 채 유일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일체제에 의해 유지·운영되게 된다.

## 2) 김정일의 역할

1967년 이후 유일체제와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김정일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40)</sup> 김정일은 1967년 사건의 여세를 몰아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주도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혁명역사

39)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락전』, 100~102쪽.

40)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94~99쪽;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 현대편 사회주의 건설사 4』, 28쪽 참조.

와 혁명업적이 남아 있는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김일성 동지 혁명 사적관’ 그리고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연구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1967년 6월 4일에는 보천보전투 30돌을 기념하며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도 세웠다. 그리고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연구실에는 김일성관련 도록, 저작, 그리고 교시를 갖추어 놓았고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 가정과 초기 혁명활동에 대하여』,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도 비치하도록 하였다.<sup>41)</sup>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 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당정책 교양, 혁명전통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저작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였으며 혁명전통 교양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도 만들어 내었다.<sup>42)</sup>

김정일은 유일체제와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권력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령의 후계자 위치에도 오를 수 있는 출발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 5. 1967년에 대한 평가

1967년이 김일성 유일체제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67년 정치적 격변의 몇 가지 특징을 간추려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1) 위의 책, 34~35쪽.

42) 김정일,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째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 238~239쪽.

## 1) 지속적인 숙청의 결정판

1967년의 숙청은 김일성이 유일체제로 나아가는 긴 과정의 연속선에서 파악될 수 있다. 언제부터 이러한 흐름이 시작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멀리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가깝게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1967년의 갑산과 숙청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1945년 이래 지속적으로 권력을 강화해 온 김일성의 오랜 권력투쟁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건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면 1950년대에 주체의 문제를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는 유일체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1967년의 정책경쟁과 권력투쟁에서도 역시 김일성이 승리했다.

권력투쟁에 승리함으로써 김일성은 자신의 의지대로 산업화를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권력투쟁 이후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기본으로 삼게 되었다.<sup>43)</sup> 속도와 균형의 상호관계를 설정할 때 속도를 기본으로 하고 균형과 계획은 높은 발전 속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이 대립을 정리한 다음에는 노선, 또는 정책을 둘러싼 의미 있는 경쟁은 전혀 없었다.<sup>44)</sup> 결국 1967년의 숙청은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숙청의 결정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

43) 박영근,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7 : 사회주의 경제 건설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133쪽.

44) 이밖에도 1969년과 1977년의 숙청이 있지만 이는 1967년의 사건에 비하면 숙청의 강도나 이후 영향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아니다.

## 2) 변동의 원인 : 김일성의 권력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1967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점에 대한 궁금증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는다. 박금철, 이효순 등 그 동안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던 갑산파가 갑자기 김일성에게 도전했기 때문일까?<sup>45)</sup> 아니면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권력의지가 강한 충동을 느껴 이들에게 정치적 누명을 덮어씌우고 숙청해 버린 것일까?

김일성의 권력의지가 작동한 것인가 아니면 도전에 대한 응전인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면 1967년의 숙청은 권력의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당의 사상·문화담당 간부들이 과거 소련파나 연안파와 같이 조직적으로 도전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도전에 비해 훨씬 약한 강도로 김일성의 권력의지에 배치되는 정책을 전개하다가 숙청당한 것이다.<sup>46)</sup> 김일성이 이들을 자신의 유일지도성을 해체시키려 했으며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일성은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처한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으며<sup>47)</sup> 이러한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갑산파 일부 세력을 예방차원에서 숙청한 측면이 강하다. 즉 도전에 의한 응전보다는 심각해질 수도 있는 도전의 조짐, 즉 갑산파의 반발에 대해 김일성이 선제 공격한 측면이 강하다.

---

45) 신경완은 1967년 사건이 김일성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김일성의 차기 후계구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전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신경완과의 대담』(서울: 김영사, 2000)(개정증보판), 99쪽. 그러나 갑산파가 김일성이나 그 후계구도에 “도전”했다는 개념이 과거 연안파나 소련파가 김일성에게 “도전”했다는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갑산파의 행동은 신경완의 증언에도 나오듯이 “반발” 정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46)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서울: 역사비평사, 2000), 427쪽.

47)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들녘, 2001), 453~456쪽.

김일성, 김정일이 주장하고 있고 이종석도 분석<sup>48)</sup>했듯이 북한에서 유일사상과 유일체제가 확립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가 바로 1967년이었다. 그리고 1967년 사건의 원인은 김일성의 권력의지가 주요한 동인이었다. 김일성의 권력의지가 발동하도록 했던 배경적 원인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이 원인들은 배경적 역할을 했을 뿐이다. 김일성의 권력의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3) 변화의 주도자 : 김정일

1967년의 정치적 격변을 김정일이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49)</sup>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1967년부터 권력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실마리이기도 하다.<sup>50)</sup> 당시 김정일은 숙청 대상자의 행태를 은밀히 조사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김정일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당비서국 조직지도부 중앙지도과 중앙기관담당 책임지도원 자격으로 김일성에게 보고하였다. 김일성은 이들이 당의 요직을 담당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먼저 당중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하였고 전원회의

48) 이종석은 숙청, 유일사상체제의 확립, 개인숭배의 전면화의 계기로 1967년을 평가하고 있다.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 사상·체제·지도자』, 427쪽.

49)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 : 현대편 사회주의 건설사 4』, 28쪽.

50) 이러한 추론은 이 시기를 전후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신경완이나 황장엽의 증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신경완은 1967년과 1969년의 사건을 김정일 후계구도와 관련지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 전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신경완과의 대담』, 99~102쪽 ; 황장엽은 “이 무렵에 김정은은 벌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가 삼촌인 김영주를 포함하여 김일성의 측근들까지 제거하는 일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 한울, 1999), 147쪽.

에서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sup>51)</sup> 김정일은 회의에 제기할 보고와 토론 준비를 하였고, 사상투쟁회의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하였다. 김정일은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위하여 문건작성에서부터 회의준비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숙청사건 이후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임무를 김정일이 담당하게 되었고 후속 사업을 주도하였다. 결국 사상 여독을 제거하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sup>52)</sup> 그 연장선에서 김정일은 문화예술 부문을 장악했고 지속적으로 사상교양사업에 간여하게 되며, 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후계자로 떠오르게 된다.

#### 4) 경제와의 상관성

1967년의 변화와 경제의 관계도 평가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다. 1967년 정치 변동을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도했는데 그 변화와 경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우선 당시 경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입장은 당시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일환으로 정치 변동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조금 다른 또 다른 한 입장은 북한 경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정치 변동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1967년 이전 몇 년간의 경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967년의 권력강화가 가능했다는 점은 좀더 복합적으

51)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략전』, 98~99쪽.

52)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310쪽.

로 당시를 바라볼 때 이해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1945년 이후, 전후 복구 과정, 1958년 사회주의적 소유제의 완결, 그리고 1960년대 추진한 사회주의 공업화를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김일성의 경제적 성공으로 평가<sup>53)</sup>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60년대 후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 변동을 시도할 수 있었으며, 인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입장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1967년의 정치격변을 시도한 원인 중 하나를 단기적인 경제 위기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치격변을 주도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종신집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해방 이후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회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공업화의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일체제로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유일체제로의 권력구조로 변화한 다음 속도를 우선시하는 민족자립경제 건설노선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며 여러 가지 경제적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경제적 난관을 풀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였으나 인민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sup>54)</sup>

---

53) 황장엽은 천리마운동,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계가 나오던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를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황금시대”, “김일성의 활동에서도 최고봉을 이룬 시기”로 기록하고 있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350~351쪽; 1960년대 북한에서 직접 생활했던 성혜량도 1960년대를 “나라가 번영하던 성공의 연대”로 기록하고 있다. 성혜량, 『동나무집』, 276쪽.

54) 성혜량은 “5·25 교시 이후 개인숭배 사상의 유포, 지적 인력에 대한 수모, 수입 기술의 봉쇄”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위의 책, 313쪽.

## 5) 정치 변동과 유일사상의 관계

1960년대 정치 변동과 유일사상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북한 체제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자리잡기 때문이다. 유일사상은 정치 변동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유일사상이 정치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이었는가? 그리고 유일사상은 대내적 요구로 대두하게 되었는가 또는 대외적 요구로 대두하게 되었는가? 김일성은 항일혁명전통을 회복하고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67년 정치 변동을 시도했다. 배타적인 권력의지를 지닌 김일성이 자신의 정책노선에 이견을 보이던 당의 사상·문화담당 간부들을 숙청했던 것은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sup>55)</sup> 즉 유일사상은 정치 변동의 촉진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변동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유일사상이 저절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유일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치 변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리고 유일사상이 대내적 요구로 대두하게 되는가 아니면 대외적 요구로 대두하게 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주체와 자주성의 개념을 고안하고 활용하게 된 계기는 분명히 외부로부터 왔다. 중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뿌리치는 논리로 주체와 자주성의 개념이 활용된 것이다. 즉 초기 주체사상의 대두 단계에서는 대외적 요구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유일사상을 확립하는 단계에서는 대내적 요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했다. 물론 1967년 당시에도 대외적 자주성이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1967년의 정치 변동의 결정적인 동인은 김일성의 권력의지였고 그 목표는 유일체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었다.

---

55)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 사상·체제·지도자』, 427~430쪽.

갑산파를 제거하고 유일지도체제를 완성하려는 대내적 요구에 의해 1967년 정치 변동이 시도되었기 때문에 유일사상은 대내적 요구에 의해 대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 : 현대편 사회주의 건설사 4』(평양 :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2).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략전』(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_\_\_\_\_, 『조선로동당력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6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7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탁진 · 김강일 · 박홍제, 『김정일 지도자 제1부』(평양 : 평양출판사, 1994).
- 김일성, “7개년 계획의 중요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총돌격하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68. 4. 25), 『김일성 저작집』, 제2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간부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0. 7. 6), 『김일성 저작집』, 제2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당중앙위원회 부장, 도당책임비서들 앞에서 한 연설, 1969. 3. 3), 『김일성 저작집』, 제2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 대표자회의 결정을 관철할 데 대하여”

- (도시, 군 및 공장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7. 3. 17~24), 『김일성 저작집』, 제2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한 연설, 1968. 5. 11), 『김일성 저작집』, 제2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우리의 인테리들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충실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함흥시 대학교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67. 6. 19), 『김일성 저작집』, 제2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당 및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이상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8. 4. 16), 『김일성 저작집』, 제2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자”(1968. 4. 13), 『김일성 저작집』, 제5권(평양 : 인문과학사, 1972).
- \_\_\_\_\_, “혁명이 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창립 스무돛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 및 졸업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67. 10. 11) 『김일성 저작집』, 제2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일성동지라전 편찬위원회, 『김일성동지라전』(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 김정일, “반당반혁명 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뽑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리송운, “나라의 살림살이와 일군들의 혁명성”, 『근로자』 5호(1965년 3월).
- 허학송,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근로자』 7호(1965).
- 『로동신문』, 1966년 10월 13일.
- 『로동신문』, 1968년 4월 22일.

<2차 자료>

- 김진계 · 김용교, 『조국』 하(서울 : 현장문화사, 1990).
- 김태서, 『북한 30년』(서울 : 현대경제일보, 1975).
- 내외문제연구소, 『북괴숙청사』(서울 : 내외문제연구소, 1975).
- \_\_\_\_\_, 『숙청을 통해 본 북괴의 암투상』(서울 : 내외문제연구소, 1966).
-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93).
- \_\_\_\_\_, “북한 정권의 형성 과정 : 인민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김일평 외, 『북한 체제의 수립과정 : 1945~1948』(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배원달, “유일체계 확립 과정에 관한 일고 : 갑산계 · 군부 대숙청을 중심으로”, 『안동대논문집』 4(1982. 12).
-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서울 : 통일연구원, 2001)
-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 지식나라, 2000).
-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 중앙일보사, 1994).
- 스칼라피노 · 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서울 : 돌베개, 1987).

- 신경완, “결에서 본 김정일 (상)”, 『월간중앙』(1991년 6월호).
- 와다 하루키,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서울 : 돌베개, 2002).
- 이성봉, “북한의 자립적 경제 발전 전략과 김일성 체제의 견고화 과정 (1953~70)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종석, “김정일 연구 1 : 후계자로서의 부상과 권력구조의 재편”, 『역사비평』 가을호(1991).
- \_\_\_\_\_,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 \_\_\_\_\_, 『김정일연구 1』(서울 : 역사비평사, 1991).
- \_\_\_\_\_,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 사상·체제·지도자』(서울 : 역사비평사, 2000).
- \_\_\_\_\_,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 역사비평사, 1995).
- 이태섭, “김정일 권력계승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 말』 7월호(1992).
- \_\_\_\_\_,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 들녘, 2001).
- 임성택, “조선로동당의 유일지도체계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임승원, “북한의 권력투쟁 숙청사”, 『통일로』 116호.
- 전원근,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있어서 파벌의 형성과 소멸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서울 : 법문사, 1985).
-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 전 조선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신경완

과의 대답』(서울 : 김영사, 2000)(개정증보판).

최성, “수령체제의 형성 과정과 구조적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 한울, 1999).

<Abstract>

## The Restructuring of the North Korea's Power Structure and the Emerging unique ideology in 1960s : from Limited Pluralism to Unique System

Lee, Sung-Hyun(National Assembly Library, Political Science)

The year 1967 provides a clue to understanding 1960s' North Korea. In this year, North Korea showed a side of itself that was quite different from its past self. For that matter, this paper looks at the 1960s by concentrating on 1967 and comparing this year with those preceding and following it.

North Korean society started with limited pluralism in the early 1960s. This limited pluralism is represented by plural ideological theories, potentiality of political factions, disagreement of unique tradition of revolution, and conflict between policy lines.

However, the turning point of North Korea's change to a unique(monolithic) system of rule, with Kim Il Sung at the helm, took place in 1967. Kim Jong Il played a main role in fashioning this unique system. The ongoing purges of those who challenged Kim Il Sung's rule came to a climax in 1967. After this power struggle, the Korean Labor Party chose a policy that would shape the socio-economic progress of the country. The

primary cause of political change in 1967 was Kim Il Sung himself. Kim conducted a purge of the *Kapsan* faction members that opposed his system of rule. The purge itself can be seen as a means to remove future challenges to Kim's political rule rather than a solution to the immediate challenge at the time. Leading these efforts to purge *Kapsan* members was Kim Jong Il, as he targeted specific members for investigation, conducted those investigations covertly, and collected incriminating information on them. By initiating the purge, Kim Jong Il took charge of establishing the unique system and the tasks that followed. Kim Il Sung's success in establishing this unique system after the purge was in part due to the land reform, reception of a socialist system, and industrialization of the nation. He further systematized a unique ideology called *Juche* as a means to justify his absolute rule. Political change was made so that this unique ideology could be implemented, not the other way around as is most naturally the case in most systems. In its initial stage, *Juche* ideology's external rather than internal demand was a more important matter, with the opposite being the case during the establishing stage. As political change in 1967 can be judged as an attempt to eliminate the *Kapsan* faction and establish a monolithic system, ideology came to the fore via internal demand.

Keywords: North Korea political change, 1967, unique system, unique ideology, *Kapsan* faction, purge, Kim Il Sung, Kim Jong Il, Pak Gun Cheol, Lee Hyo Soon